

◎ 江原大, 국제 심포지엄 개최

강원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국민경제대학과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경제정책 비교와 교류 전망'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강원대 인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러시아 국민경제대학의 미하일 트레차코프 교수 등 2명이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금융제도」를, 강원대 박의법 교수 등 2명이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제교류 전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 慶南大, 일제시대 중요사료 도서관에  
입수·소장

경남대는 지난 5월 27일, 1872~1945년의 '일본육군성·해군성의 문서'와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오노 료쿠이치로의 문집'을 전달받아 도서관에 소장하였다. 이는 경남대 한석태 교수와 배재대 강창일 교수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국내 최초로 입수·공개되는 사료로서 일제의 조선침략사와 조선식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일본 육군성·해군성 문서'는 8절지 7만장 분량으로 보고서, 작전계획서 등이 있고, 문집은 일제시대 지방관청에서 수집한 경제동향과 통계발표자료 등이다. 경남대는 7월 초순께 영인작업을 마쳐 책자로 발간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 慶熙大에서 국어국문학회 연구발표회 개최

국어국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경희대에서 열렸다. '국어국문학 연구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전국 각 대학에서 60여 명의 교수가 참가할 가운데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등 세 분야에서 총 2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어 41차 정기총회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열띤 성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최측인 국어국문학회는 이번에 발표

된 내용을 '국어국문학 연구의 성과와 반성(연구사)'의 표제로 한데 묶어 곧 출간할 예정이다.

◎ 高麗大 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6월 13일 인촌기념관에서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한국문화연구소장 金廷鶴씨의 「가야사 연구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6세기의 가야와倭」, 「가야의 정치적 발전」, 「최근 가야지역의 고고학적 성과」, 「가야와 倭의 문물교류」 등에 관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편, 아세아문제연구소는 6월 12~13일 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0차 한·일 지적교류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 국제교류센터와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는 '신지역질서와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한·일간 현안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고려대의 韓昇洲 교수, 洪承稷 교수 등과 일본의 다다시 야마모토 일본국제교류센터 소장 등이 참가했다.

◎ 國民大 경제경영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민대 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6월 12일 동교본관에서 한국·미국·일본 초청 3개국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에서는 美 Pacific 대학의 Diovnick 교수와 아시아생산성본부위원 유지수씨가 「미국과 일본기업의 조직 및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 비교」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미국·일본 기업의 국제경영전략비교'를 미국 Pacific 대학 문휘창 교수와 동경국제대 와다나베 교수가 각각 「New Challeng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heories vs. Practices」와 「Japanese multinationals search of a global Japanese management styl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尙志大, 부속한방병원 개원

상지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지난 6월

11일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물면적 7천 1백 1m<sup>2</sup>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로 완공되었다. 이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50억 원을 들여 지난 '89년 6월 착공한 것으로 모두 80개 병상과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한방병원에는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물리요법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체질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원주·춘천 등 중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게 되었다.

◎ 서울대, 『연구업적』 발간

서울대 연구처는 지난 '91년 한 해 동안 동교 교수들이 내놓은 연구업적을 한데 묶은 『연구업적』을 발간, 지난 5월 1일부터 각 대학 등에 배부하였다. '91년도 『연구업적』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수 1천 3백 26명 중 1천 1백 31명이 발표한 단행본 388권, 논문 3,452편, 예술창작발표 2백 32회의 목록을 담고 있으며, '90년도 연구업적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행본 10여 권과 논문 160여 편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업적』은 지난 '87년도부터 매년 발간하여 왔는데 동교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교수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대학내 연구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서울産業大에서 한국폐기물학회 열려

서울산업대 교양관에서는 지난 5월 9일 한국폐기물학회 주최로 '순계총회, 특별강연 및 학술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각 대학, 기업체 연구팀이 참석하여 폐기물 활용과 오염물질 대비책 등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논문 등 총 1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延世大 동서研·산업研, 한·베트남 학술회의 개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27~28일에 '베트남의 경제현황과 한·베트남 경제교류'라는 주제로 네번째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베트남과의 교류를 넓힘으로써 한국·베트남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고 경제협력 증진과 한국에서의 인도차이나 연구를 진작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인도차이나 3국의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경제 각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학자들이 한국과 인도차이나 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반 베트남의 개혁방향 △베트남경제의 소유제도와 역할 △베트남의 대외경제협력 확대방향 △베트남의 무역정책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의 발전—노동력활용과 촉진방안 △베트남의 중공업개발현황 △베트남의 농업 및 식품산업 △한·베트남경제협력—베트남통신산업에의 금성정보통신의 경험 △베트남의 자원개발과 한국의 참여방안 △한·베트남 경제교류—현황, 전망, 문제점.

◎ 蔚山大, 산업기술연구소 건립 예정

울산대는 내년 하반기에 지방대로는 최초로 대학내에 기업체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3천여 평 규모로 현대그룹 계열사와 울산·온산공단의 비철금속 업체 등 대기업의 각종 연구소를 입주시켜 기업과 대학이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산학협동 강화와 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울산대는 지난 5월 1일 이수동 기획실장 등 5명으로 연구소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교수제도, 특수학위과정, 산학교수제 등의 주요 운영방침을 결정했다.

◎ 濟州大, 한·미·일 관계 세미나 공동개최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는 6월 4~5일간 제주 오리엔탈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향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형욱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충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문대단 제주신문 논설위원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향한 한·미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둘째날에는 김태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부찬 교수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향한 한·일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한편, 제주대 박물관은 지난 5월 29일 제주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제주시 삼도 2동 관덕공원내 8천 m<sup>2</sup>에 대한 제주목 관아지 발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관덕공원내 제주목 관아지에 대해 제주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박물관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발굴조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조사 때에도 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단호검목사' 등 다수의 명문기와도 함께 출토된 곳이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술연구 및 공원조성 계획 기초자료로 활용될 이번 발굴조사에는 모두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朝鮮大 총장, 丁炳然 교수 선출

조선대는 지난 6월 18일 실시된 총장 결선 투표에서 조선대 제9대 총장으로 丁炳然 전 서울대 교수를 선출했다.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내지 못한 채 실시된 결선투표에서는 98%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趙煥從 후보와 14표 차이로 丁교수가 선출되었다. 丁교수는 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1차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 교수 補職人事 □

• 東亞大

기획실장 : 이대규

재무처장 : 이윤원

• 서울産業大

제 1 공학부장 : 정석주

제 2 공학부장 : 신재중

제 3 공학부장 : 김왕곤

제 4 공학부장 : 심학보

조형학부장 : 신학수

인문·사회·자연학부장 : 박영규

• 成和대

기획실장 겸 한국어교육원장 : 高鍾元

총무처장 : 洪年杓

• 世宗大

신문사 주간 : 최정필

• 延世大

신문사 주간 : 박영필

교육방송국 주간 : 유석춘

• 全南大

수의과대학장 : 李政吉

• 全北大

예술대학장 : 송계일

신문사 주간 : 서거석

• 濟州大

대학원장 : 이정재

인문대학장 : 김영화

농과대학장 : 오현도

해양대학장 : 노홍길

교육대학원장 : 양순필

중앙도서관장 : 고유봉

전자계산소장 : 김경식

• 朝鮮大

박물관장 : 朴亨寬

• 韓國放送通信大

교무처장 : 李鍾蕙

학생처장 : 張富逸

기획실장 : 朴淳直

도서관장 : 李喆周

인문과학부장 : 尹用植

사회과학부장 : 金燦東

자연과학부장 : 白英子

교육과학부장 : 李鍾汶